



VIDEO PORTRAIT

08. 31 THU ——— 10. 22 SUN

기간
2017. 08. 31(목) - 10. 22(일)

장소
토탈미술관

오프닝
2017. 08. 31(목) 13:00

클로징파티
2017. 10. 22(일) 15:00

큐레이터
요한 노왁(DNA 갤러리)
신보슬(토탈미술관)

코디네이터
이태성 · 정효섭

인턴
박민서 · 박은영 · 현승우

참여작가
Burak Delier
Christian Jankowski
Egill Sæbjornsson
Gary Hill
Halil Altindere
Kyungwoo Chun
Mariana Vassileva
Marikke Heinz Hoek
Markus Huemer
Mike Steiner
Nezaket Ekici
Nezaket Ekici / Shahar Marcus
Theo Eshetu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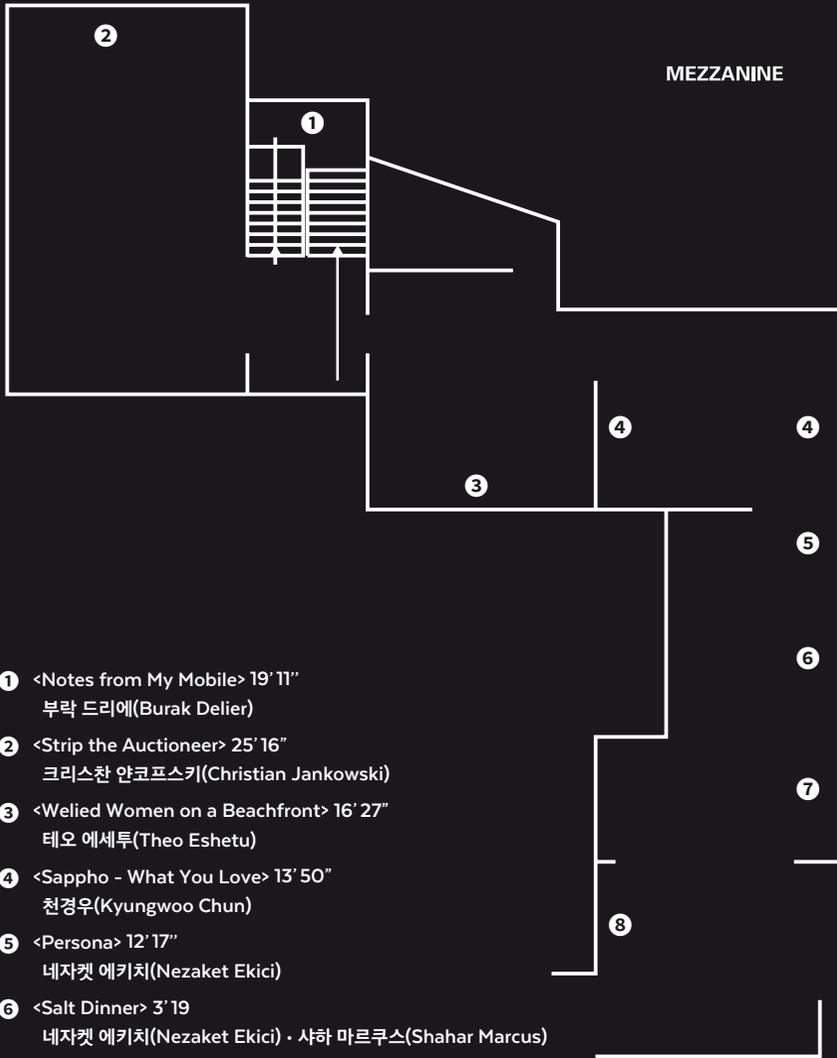
디자인
손혜인

작품설치
이정형(티피컬리)

장비대여
미지아트 · 스페이스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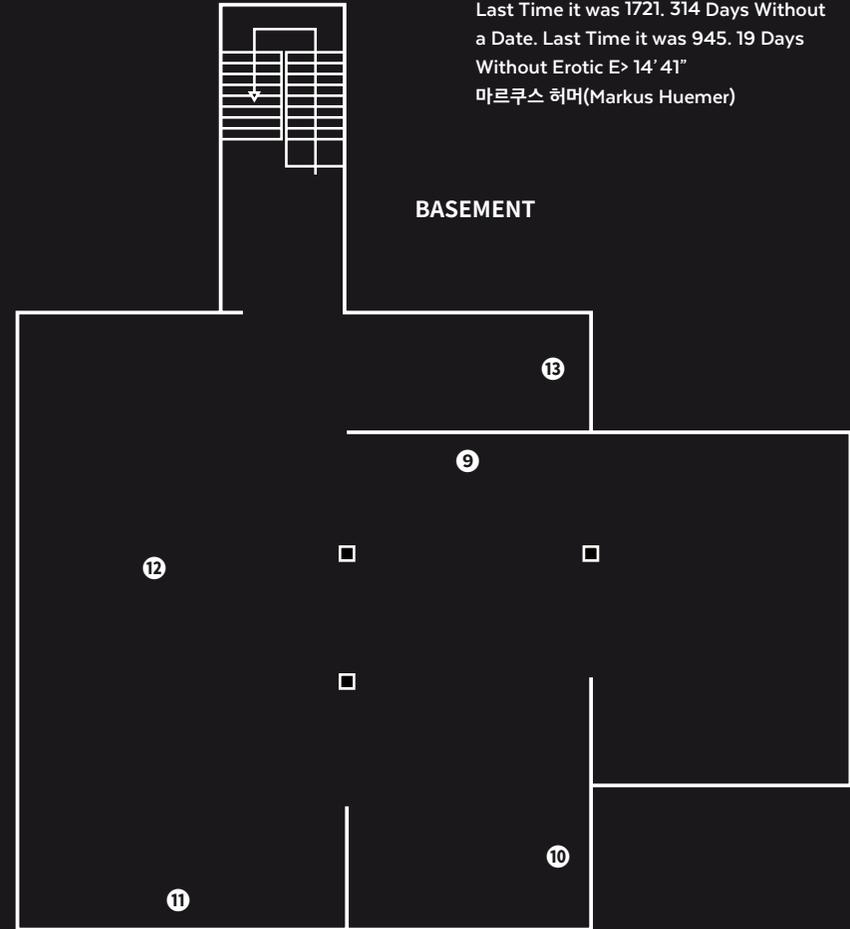
도움주신분들
브라운스워드 · 레이디탑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MEZZANINE

- ① <Notes from My Mobile> 19' 11"
부락 드리에(Burak Delier)
- ② <Strip the Auctioneer> 25' 16"
크리스찬 얀코프스키(Christian Jankowski)
- ③ <Welied Women on a Beachfront> 16' 27"
테오 에세투(Theo Eshetu)
- ④ <Sappho - What You Love> 13' 50"
천경우(Kyungwoo Chun)
- ⑤ <Persona> 12' 17"
네자켓 ऐ키치(Nezaket Ekici)
- ⑥ <Salt Dinner> 3' 19"
네자켓 ऐ키치(Nezaket Ekici) · 샤하 마르쿠스(Shahar Marcus)
- ⑦ <Who Shot the Artist?> 01' 45"
할릴 알딘드레(Halil Altindere)
- ⑧ <Irritation> 20' 16"
마크 스타이너(Mike Steiner)



BASEMENT

- ⑨ <Mr. Piano & Mrs. Pile> 25' 53"
에길 스페론손(Egill Sæbjörnsson)
- ⑩ <Be Calm> 4' 44"
마리아나 바실레바(Mariana Vassileva)
- ⑪ <Remebering Paralinghuay> 3' 33"
게리 힐(Gary Hill)
- ⑫ <Motion Picture> 21' 37"
마리케 헤인즈 호엑(Marikke Heinz-Hoek)
- ⑬ <1194 Days Without a Tongue Kiss.
Last Time it was 1721. 314 Days Without
a Date. Last Time it was 945. 19 Days
Without Erotic E> 14' 41"
마르쿠스 허머(Markus Huemer)



Notes from My Mobile, 2012, Single-Channel, 19'11"



이 작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기 비판적인 장면을 보여 준다. 작품은 조그만 상자 안에 설치된다. 상자의 작은 구멍과 헤드폰을 통해 보여지는 이 작품은 마치 예술가의 내면을 엿보는 느낌을 갖게 한다.

자기 비판, 자기 검열, 자기 노출은 우리의 삶과 개성의 원동력이다.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폰은 스스로를 집착하도록 만들어 기존에 형성된 자아와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이는 최근 '셀피(Selfie)'의 유행과 SNS의 정신적 작용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현대 통제 매커니즘은 자아생산과 모델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바일은 오늘날 나르시시즘의 흥수와도 같다. 예를 들어, 내가 비디오에서 나에게 하는 말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 말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지만, 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지배적인 사회적 기풍이다. 당신을 품위있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압박하고 비판하고, 굴욕감을 주는 목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과 관련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작가의 사회 구조들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면서도, 사회 구조의 가치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작가는 사회의 변명을 위해 누군가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함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II

부락 드리에(Burak Delier)

b. 1977

작가는 1977년 아다파자리에서 태어나 이스탄불에서 거주하며 작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자유, 자발성, 즉흥성, 창조성, 믿음 등의 개념에 대해 탐구한다. 작가는 자유가 이미 결정된 대본의 결과가 아니라, 불확실성과 긴장감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계획과 미술의 전략들을 통합하고 그가 동의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매체의 기술들을 채택함으로써 그는 예술적 실천은 예술가로서의 그의 지위와 이러한 상황의 정치적 협상과 관련된 어려움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작가는 일디즈 기술대학교 디자인 예술학과에서 미술을 전공하였으며, 최근 예술과 정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예술 세계의 시나리오 (Scenario of the Art World)"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다. 현재 사카리아 대학교 미술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Strip the Auctioneer, 2009, Single-Channel, 25'16"

II

크리스찬 얀코프스키

(Christian Jankowski) b. 1968

작가는 독일의 괴팅겐에서 태어나 함부르크 예술대학을 졸업했다. 주로 비디오, 설치, 사진을 통해 영상작업을 하며, 현재 베를린에서 활동 중이다. 그의 작업은 작가 자신과 비예술 전문가들 그리고 미술계와 미술계 밖의 세계 사이의 수행적 상호작용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예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제시하고, 많은 현대 예술이 현대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예술은 라이프스타일, 심리학, 의식, 그리고 축하, 자기 인식, 경쟁 그리고 공산품과 명품 등으로 여겨진다. 이후 작가는 마술사, 정치인, 뉴스앵커, 바티칸 교황청의 일원과 협업을 진행했다. 작가는 TV, 영화, 사진, 인쇄물 등 주로 대중매체를 활용한다. 작품의 맥락이 도드라져 보이기 위해 포폴리즘적 매체인 대중매체를 활용한다. 작가는 사회와 예술에 관한 반성과 해체 등 비판적 내용을 다룬다. 사회적 사건을 통해 비판에 관한 잠재성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작업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매 기관인 크리스티에서 일하고 있는 경매인과 협업하여 진행되었다. 작품에서 경매인은 재킷, 넥타이, 신발, 양말, 셔츠 등 자신의 옷을 경매하는 행위를 한다. 그리고 경매인의 소장품들이 경매 순서대로 연이어 최고가에 낙찰된다. 경매인은 옷이 다 팔리자 마지막에 경매인의 상징인 경매 망치까지 팔고만다. 이 작업은 실제 크리스티에서 일하는 사진기사에 의해 촬영되었으며, 크리스티의 인터넷 현장 중계 포맷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작가는 이 작품의 연극적인 판매 과정, 즉 풍자극인 이 작품을 통해 예술의 상징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일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Theo Eshetu

▶ <Welied Women on a Beachfront>은 문화적 차이에서 벗어나 보이는 것에 대한 주제와 보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 탐구하는 이슬람의 세계관에 대해 보여주는 비디오 설치 시리즈 중 첫번째 작업이다. 작품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정적인 자세로 서 있다. 이는 그녀가 연기자나 자발적으로 동작을 표현하는 행위예술가가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무능력한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다. 반복되는 이미지는 주인공의 실루엣에 윤곽선을 그려 패턴처럼 표현한 것이다. 이슬람 고유의 문양과 디자인을 상징을 연상시켜 사람의 모습이 아닌 반복되는 기호의 모습으로 대중에게 보여진다. 그림의 표현, 추상적인 패턴이 6개의 스크린으로 양분되어 나타나 두 문화 사이의 총체적 대화로 나타난다.

<Welied Women on a Beachfront>에는 작품 내용 이외에 미술의 역사가 들어 있다. 영국의 사진가 에드워드 마이브릿지는 정지된 고속셔터를 활용한 촬영법으로 피사체를 표현한다. 또한, 뒤샹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의 작품에 착안하여 작품을 제작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있다.

II

테오 에세투(Theo Eshetu)

b. 1958

테오 에세투는 1958년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아디스 아바바, 벨그라드를 거쳐 현재 로마에 거주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비디오 아트의 개척자로서 미디어와 정체성, 그리고 세계적인 정보 네트워크 간의 관계들에 대해 탐구한다. 1982년 초 당시 국영방송 시스템 해체에 대한 갈망을 시작으로 영상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작업은 다큐멘터리나 설치작품 및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예술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무빙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술적, 개인적 메세지 보다는 제도적 현실이나 정치적 현실에 관하여 논한다. 세네갈과 에티오피아에서의 생활을 포함한 범국가적인 삶을 바탕으로 예술의 국가적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작가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였으며, 1993년 베를린 비디오 페스티벌에서 <Traveling Light>로 일등상을 수상했다. 현재 카셀 도큐멘타4에 참여하고 있다.



Welied Women on a Beachfront, 2011, 6-Channel Video Installation, 16' 27"

Kyungwoo Chun

▶ 고대 그리스 시인 사포(Sappho)의 시를 배경으로 제작된 이 비디오 설치의 독일 작곡가 게르하르트 슈테블러(Gerhard Staebler)와의 공동작업으로 현대음악 페스티벌(WDR Musik Fest)에서 초연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의 라이브 음악 연주를 위해 처음 구상되었다.

그리스 섬의 이른 아침 바다로부터 시작되는 마주보고 있는 한 중성적인 여인의 얼굴이 담긴 영상에는 침묵과 목소리로 교차되는 시 낭독의 시간이 담겨있다. 그 시간을 온전히 응축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담아낸 '사진'과 그 사진 안에 담겨있는 동일한 시간의 흐름이 기록된 '비디오'가 멈춤과 움직임이 아닌 존재의 방식으로서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의 시를 기억해 내는 인물은 그 시간을 모두 품고 있는 한 장의 사진 속 자신과 마주하며 동일한 시를 바탕으로 한 음악 속 악기연주, 합창, 솔로로 구성된 음악은 사포에게서 선택된 단어들과 불규칙한 행간의 들리지 않는 소리들과도 같이 불일치와 일치와 교차하는 우연성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II

천경우(Kyungwoo Chun)

b. 1969

천경우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92년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수학 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작품활동을 했다. 작가는 장시간 노출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윤곽과 형상을 흐릿하게 연출한 인물 사진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작업 이외에도 세계 여러 도시(뒤셀도르프, 바르셀로나, 서울, 베를린, 프라하, 리버풀, 리스본, 코펜하겐, 뉴욕 등)에서 공공 참여 퍼포먼스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유럽과 한국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Danish Art Council grant DIVA(2007), 영국 Ivory Press grant(2007), 한미사진상(2007), 브레멘 공공미술상(2008) 등을 수상했다. 현재 휴스턴 미술관(미국), 헤이그 시립미술관(네덜란드), 옌센 사진미술관(덴마크), 한미사진미술관(한국), 그리고 함부르크 미술 공예박물관(독일)을 포함한 주요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Sappho - What You Love, 2008, 2-Channel Video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13' 50"

Nezaket Ekici



Persona, 2017, Single-Channel, Video Performance, 12'17"

II 네자켓 에키치(Nezaket Ekici) b. 1970

네자켓 에키치는 1970년 터키에서 태어나 1973년 가족들과 함께 독일로 이주했다. 현재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한다. 그녀는 뮌헨에서 조각과 회화를 전공했으나, 행위예술로 전공을 바꿔 브라운슈바이크에서 행위예술로 석사를 졸업했다. 현재 작가는 40개 나라, 12개 도시의 150개의 미술관, 갤러리, 비엔날레 등을 돌아다니며 퍼포먼스 작업을 한다. 작가는 미술사와 건축, 성별, 종교 그리고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 이주민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매일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를 기반으로 작품을 만든다. 순간 일어나는 상황의 시간과 움직임, 장소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작가의 작품에 고스란히 표현된다. 작가는 상황에 맞추어 몸으로만 퍼포먼스를 구상하거나, 설치물과 함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작가는 자유로운 작품 관리를 통해 관람객이 다양한 관점과 의미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작가가 겪는 일상 안에 특별한 상황이 삶의 흐름을 새롭게 바꾸어 줌으로써 주변의 다양한 요소들이 총체적 예술로 연결되는 것에 집중한다.

▶ <Persona>는 작가 네자켓 에키치가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고 돌아다니는 퍼포먼스 영상이다. 주인공은 베네치아 운하를 돌아다니는 곤돌라 안에서 계속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그녀의 얼굴은 하얀 마스크로 덮여 있고, 이것은 그녀 자신의 얼굴이다. 베네치아 카니발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축제 중 사람들은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다. 모든 마스크는 예술적인 가면이다. 작가는 왜 보통 흰색 마스크를 쓰면 안 되는지에 관한 질문의 답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 사람들은 작가의 마스크가 축제 때 착용하는 마스크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작가는 본인이 쓴 마스크처럼 성격이나 모습 역시 가공되어 보여지는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Nezaket Ekici Shahar Marcus



Salt Dinner, 2013, Single-Channel, Video Performance, 3'19"

II 네자켓 에키치(Nezaket Ekici) b. 1970

네자켓 에키치는 1970년 터키에서 태어나 1973년 가족들과 함께 독일로 이주했다. 현재 베를린과 슈투트가르트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한다. 그녀는 뮌헨에서 조각과 회화를 전공했으나, 행위예술로 전공을 바꿔 브라운슈바이크에서 행위예술로 석사를 졸업했다. 현재 작가는 40개 나라, 12개 도시의 150개의 미술관, 갤러리, 비엔날레 등을 돌아다니며 퍼포먼스 작업을 한다. 작가는 미술사와 건축, 성별, 종교 그리고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 이주민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매일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를 기반으로 작품을 만든다. 순간 일어나는 상황의 시간과 움직임, 장소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작가의 작품에 고스란히 표현된다. 작가는 상황에 맞추어 몸으로만 퍼포먼스를 구상하거나, 설치물과 함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작가는 자유로운 작품 관리를 통해 관람객이 다양한 관점과 의미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작가가 겪는 일상 안에 특별한 상황이 삶의 흐름을 새롭게 바꾸어 줌으로써 주변의 다양한 요소들이 총체적 예술로 연결되는 것에 집중한다.

▶ 두 명의 작가가 사해 바다 위에 떠내려가는 식탁 위에서 음식을 나누는 퍼포먼스 영상이다. 사해의 바닷물은 그릇을 닦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소금기로 인해 몸이 무거워진다. 파도를 따라 테이블은 계속 떠내려가고, 주인공들은 바닷물로 인해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 테이블을 붙잡고 음식을 먹는다. 사해 바다의 파도와 내리쬐는 햇살에 주인공들은 점점 지쳐간다.

II 샤하 마르쿠스(Shahar Marcus) b.1971

샤하 마르쿠스는 1971년 페타티크바에서 태어났으며, 영상, 퍼포먼스, 조각을 주로 다루는 이스라엘 학제 간 예술가이다. 현재 텔아비브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텔아비브 대학에서 언어학 학사, 문학 석사와정을 마쳤다. 작가는 본인의 신체를 통한 작업을 주로 선보인다. 육체는 부패하는 대상으로 밀가루, 빵, 주스 등의 음식물과 상호관계를 가진다. 육체와 음식물의 관계는 창조물과 창조자의 관계와 유사하다. 부패하는 물질은 자연과 일생의 흥망성쇠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테이트 모던 뮤지엄, 텔아비브 미술관, 코펜하겐의 쿤스텔 샬롯텐부르크(Kunsthal Charlottenborg) 이외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다양한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했다.

Halil Altindere

II

할릴 알딘드레(Halil Altindere)

b. 1971

할릴 알딘드레는 터키 마르디네에서 태어나 이스탄불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편집장과 저명한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터키 예술계의 중심적인 인물로 주목받았다. 작가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코드들을 탐구했다. 특히 억압적인 체계에 대한 저항과 주변화를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서브컬처, 젠더, 그리고 일상에서 특이한 상황들에 초점을 맞춘 작업을 했다. 신분증, 지폐, 우표 등 일상적인 오브제들을 가지고 국가와 권위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바꾸는 작업을 선보였다. 작가의 아이러니하고 정치적인 접근방식은 관객들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었다. 작가는 도큐멘타, 메니페스타, 이스탄불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사르자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Who shot the Artist?, 2009, Single-Channel, 01'45"

▶ 2009년, 작가는 <Who Shot the Artist?>라는 짧은 비디오를 촬영한다. 이 비디오는 상점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쇼핑 아케이드를 보여주며 시작된다. 다음 장면에서, 예술가 자신은 독백을 하면서 관객을 향해 다가온다. 카메라의 방향에서 익명의 가해자가 쥐고 있는 총이 시야로 들어온다. 총은 발사되고 피의 얼룩이 예술가의 흰 셔츠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걸으면서 이야기한다. 계속해서 총이 발사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 작업은 비판적 지식인들에 대한 공격들이 재발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공격들은 암살, 폭력, 검열 그리고 목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또한 예술가는 침묵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Mike Steiner

II

마크 스타이너(Mike Steiner)

b. 1941

1941년 동프로이센의 알렌슈타인에서 태어난 작가는 영화 제작사에서 짧은 견습생활을 마치고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시작했다.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그는 전통적인 회화의 방식을 익혔으며, 미니멀리즘, 해프닝, 리빙 씨어터 등 다양한 기법에도 관심을 보였다. 1967년 작가는 슬라이드 프로젝션과 음악, 필름, 영상 녹화기법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 실험 영상을 제작했다. 작가는 작품활동 이외에도 자신의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많은 작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요셉보이스, 볼프포스텐, 벤 바우티어 등의 플럭서스 작가들, 그리고 발리 엑스포트, 유레케 로센파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등 페미니스트 작가들과 교류하며 본인의 공간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Irritation, 1976, Single-Channel, Black&White, Production by Mike Steiner & Wilma Kottusch, 20'16"

▶ 올라이(F. Uwe Laysiepen)는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위험한 예술 행위에 착수했다. 그의 작업 'Dadaesque irritation of the Berlin art world'은 단지 아카데미, 미술관 그리고 갤러리와 같은 예술 장소들의 경계에 대한 상징적인 위반 그 이상을 의미한다. 위조된 예술작품의 도난 사건이 발생한 후, 기자들은 기존 예술계에 대해 공격하는 마크 스타이너의 'Studio galerie'을 언급했다. 분개한 언론의 반응은 아마도 그 개념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법정에 가게 된 올라이는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았다. 대신에 그는 독일을 떠나게 되었지만, 2년 후 뮌헨 공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체포되었다. 그리고 친구가 보석금을 지불하면서 풀려 날 수 있었다.



Mr. Piano & Mrs. Pile, 2004, Dual-Channel Video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25' 53"

II

에길 스베르손(Egill Sæbjörnsson) b. 1973

에길 스베르손은 1973년 레이카비크에서 태어났으며, 파리 제8대학과 아이슬란드대학을 졸업했다. 작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일어난 것 사이의 단순한 연관성에서 정신적 실제와 물리적 실제 사이의 연관성에 관심을 갖는다. 작가의 작업은 투사된 비디오에 의해 대상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디오는 생각이나 정신적 실제로 지각되고 대상은 물리적 실제로 지각될 수 있으며,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인식하듯이 영상 역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투사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각기 다른 기준들에 의해 해석되는 해석적 요소, 마력, 음악 등의 다양한 요소들은 어느 정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게 한다. 회화와 드로잉을 공부했던 작가는 회화적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회화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은 살아 있으며,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다. 작가는 "예술은 인간과 함께 진화하는 독립적인 종족"을 표현한다. 우리가 사람에 의해 가축화되면서 강아지로 진화한 것처럼, 예술 또한 인류와 함께 형성된다. 작가는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 작용하는 창조적인 힘을 찬양한다. 작가의 작품을 단순한 설치 작품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은 예술과 사람의 상호관계를 통한 실험적 접근 때문이다. 작품은 각각 무대의 행위예술, 수집된 조형물, 입체적인 회화작품으로 표현된다. 작가는 다양한 정의를 통해 통찰력을 가미한 독특한 시각 언어를 만들어낸다. 예술, 과학, 종교를 초월한 창조적 권능이 존재함을 말한다.



▶ 작품은 주인공 Mr.피아노와 Mrs.파일이 사람들과 함께 한 공간에 머물러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한다. 그들은 장 폴 사르트르의 '닫힌 방(Huis Clos)' 희곡을 부르거나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come and go'에 등장하는 3명의 여인의 파트를 노래한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해 토론하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들의 존재론적 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한 대화들에서 유머가 가장 중요하다. 그들이 말하는 것의 절반은 그들이 유머에 도달할 때, 색을 더하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것들이다. 이는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서와 같이 목적이 아닌 과정, 실존에 대한 타오이안과 쟈의 철학과 관련된다.

그들이 대화하는 방식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들의 쟁점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는 몇 단어들로 빈공간을 채우는 데 있다. 이러한 표현은 색깔이며, 쥬스이다.

이 대화는 예술 작품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진단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이 대화는 공중에 떠 있는 고기 한 점과 같다. 그것은 방안 모든 것에 대한 색깔을 적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이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다. 그것은 페인트다. 또는 조각은 만들어진 돌이다. 이러한 설치의 회화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조각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연극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등등의 질문을 한다.

이 설치의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 철학적 질문에 대해 묻는다. 우리는 니체의 시대, 탈신화 시대에 살고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니체는 100년간의 종교의 공백을 예견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사망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예견할 수 있을까? 또는 잘못된 방향인가?



<Be Calm>는 다소 급작스럽게 발표된 작가의 첫 영상 퍼포먼스 작품이다. 작품은 개인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한 지배 관계를 시사한다. 단순히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틀에 박힌 생각을 한다. 생각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점차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생각의 틀이 자신을 압박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틀을 깨는 것이 두려워 멈춰 있거나, 이전의 모습으로 도망치려 하지 않을까?

본 질문은 예술가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중 하나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죄책감이 찾아올 때, 커뮤니티 안에서 그들의 강력한 힘으로 침묵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 몸과 마음이 각자 멀어져 극으로 치달는다. 홀로 있을 때는 괜찮겠지만, 우리는 늘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매일 같은 문제를 가지고 부딪힌다. 공동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부적, 외부적으로 획일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개인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다. 비록 이런 세상 속에서 인간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지만, 희망의 정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렇기에 자유를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침묵을 깨고 소리치기도 하고, 이전 것에 반항하듯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몸부림치기도 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침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II

마리아나 바실레바 (Mariana Vassileva) b. 1964

마리아나 바실레바는 일상과 사람들의 행동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새롭게 변형하는 작업을 한다. 작가는 단순한 물리적 행동보다 잠재된 정신적 부분에 관심을 둔다. 사물, 상황, 방식 등 일상을 최소한의 방법으로 각색하여 이전과 다른 서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해낸다. 관람객들은 작품 속 사회를 감상하며 감정변화를 느낀다.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은 일상의 변화에 대한 감각이 점점 높아진다.



Be Calm, 2017, Single-Channel, Performance Documentation, 4' 44"

II

게리 힐(Gary Hill) b. 1951

게리 힐은 산타모니카 출생의 미디어 아트 작가다. 1960년대 후반 금속조각 작업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1970년대 초반부터 전자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싱글 채널 비디오와 영상 그리고 사운드에 기반을 둔 설치작품들을 선보였다. 작가는 언어의 물질성, 관객의 반응, 초월적인 공간의 공감각과 난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나열하는 작업을 한다.



Remebering Paralinguay, 2000, Single-Channel, 3'33"

▶ 이 싱글 채널 프로젝트 작업에서 한 여성이 먼 지점에서 나와서 보이지 않는 틈과 공간을 가로지른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울 때까지 투쟁한다. 그 순간 그녀는 있는 힘껏 힘을 끌어모아 깜짝 놀랄만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이 소리는 고대 신호체계처럼 매우 원시적인 성격을 띤 듯하다. 언어, 음악, 부름, 그리고 비명 사이의 얇은 선은 소리의 뚫을 수 없는 성격을 강조한다. 어쩌면 지나가는 관람객이 있으면 안 되는 장소와 시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 깨달음은 알 수 없는 먼 과거나 발달한 미래에 아크 전기와 같은 위험한 에너지 개발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한다.

II

마리케 헤인즈 호엑 (Marikke Heinz-Hoek)

b. 1944

작가는 독일, 위너(Weener)에서 출신으로, 재단사 수습생활을 거쳐 브레멘 국립예술 학교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 1974년까지 Delmenhorst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현재 프리랜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추억"과 "전설"을 주된 주제로 쓴다. 그림, 회화, 영상, 다큐멘터리 영화, 사진, 텍스트,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보여 준다. 이 밖의 브레멘 비디오 아트 페스티벌(Videokunst Förderpreis Breme)의 연계 전시인 뉴미디어 프로젝트(2010-2010)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브레멘 대학에서 비디오아트학과, 응용과학대학, 베를린 예술대학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지금은 독일 예술가 협회(Deutscher Künstlerbund) 회원으로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는 브레멘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있다.



Motion Picture, 2017, Single-Channel, Black&White, No Sound, 21'37"

▶ 작품은 깊은 감정에 대한 짧은 연구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냈다. 늙은 여인이 젊은 당시의 노래를 듣고 있으며, 소리 없는 화면으로 구성된다. 흑백의 느린 화면으로 표현된 늙은 여인의 움직임이 끝없이 반복된다.

II

마르쿠스 허머(Markus Huemer) b. 1968

마르쿠스 허머는 1968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태어났다. 작가는 회화 공부 중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를 통해 미디어아트에 관심을 가지며 작업을 시작했다.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를 졸업하고 쾰른에 있는 미디어 아트 아카데미에서 선임연구원(Academy of Media Arts, Cologne)으로 활동했다. ZKM(Center for Art and Media Karlsruhe) 장학금을 받으며 미디어 아트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후 미술사와 철학, 그리고 라틴철학을 공부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대학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2015년 까지 체코 프라하 예술대학교(Academy of Fine Arts Prague)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194 Days Without a Tongue Kiss. Last Time it was 1721. 314 Days Without a Date. Last Time it was 945. 19 Days Without Erotic E, 2005. Single-Channel, Projection on Canvas, Dimensions Variable, 14' 41"

▶ 작가는 표현과 묘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흥미를 느낀다. 수평적으로 대치되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투사기법, 설치, 납작하게 만든 것아웃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작가는 작품에 최소한의 색을 사용하여, 사람의 시각적 인식 그리고 이에 따른 현혹을 지적한다. 흑색, 회색, 흰색 명암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각의 고요한 세계로 빠져들어 기존의 거짓된 인식을 차갑게 파괴한다.

작가는 회화와 드로잉,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티브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다. 고전적인 것들에 대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아트의 적합성을 탐구한다. 작가는 자기 모순적 패러디를 통해 미술사와 미디어아트 역사 안에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천재성에 의문을 던진다. 또 다른 작품의 시작점은 '언어 탐구'다. 작가는 자신의 언어를 작품에 적절히 활용한다. 작가가 생각하는 것, 전달하려는 것, 이해하는 것을 본인의 언어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한다. 작가는 작품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반어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정한다. 사람들은 제목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게 된다.



VIDEO PORTRAIT

TOTAL MUSEUM  DNA
OF CONTEMPORARY ART THE NEW YORK TIMES MAGAZINE